朝鮮日報
二十六夕刊

時評

長風吹萬里

×

甲乙의兩地點에 氣壓의不權衡이잇는때 반듯이風을發한다 小風이잇고大風이잇다 進進히北海에서닐어나 進進히南海로다러난다고風의動作을形容한者도잇거니와 만일그地極으로부터地極에 蕩蕩하게몰려와서 萬物을振撼하고 萬竅가怒號케하야 모다그位置를飜轉하고 首尾를顚倒케하는者는 아大風 即萬里를불어오는長風이다 그러나이長風 그의蕩蕩한勝勢天地에가득하되 任意로오고 任意로가서 다만그悽愴한光景을듯고또보되 畢竟엇지할수는업는바이다

×

昔者蒙古의曠原에서 蹶起한『한쓰』人의大運動은 天山의南北路로부터 中央亞細亞의平原에進出하야『뢰드』人으로하야금『볼가』河의流域으로부터歐洲의天下를 進擊한바

直到鴨江畔

잇서 今民族大移動의歷史的大事件을産出하엿고 千年의帝國 世界的大雄邦 그들의자랑하든不滅의都府 文明의淵藪인羅馬의繁榮한市街도畢竟은廢墟를짓고말엇다 만흔것이飜轉하고 또顚覆되엇다 이도確實히 人類史上의雄大한一長風이엇섯다

×

革命의東漸을說한다 十八世紀『푸랑쓰』의平原에서생겨난民權革命의重心은『솔라뷰』人의根據地인『룬드라쓰』와曠漠한따에東漸함에際하야 문득無產革命의轉換된方向으로써하야 하늘을치밧는소용돌이 그의무시무시한大颶風으로써하고 이險惡한氣流는이내『우랄』의山脈을넘어 東方의諸國에까지몰려옴을意味할것이다 吾人은이를敷演코저는아니한다 그러나天下의形勢! 다만禍亂의東漸을承認하지아니할수업는것은 또한嚴肅한一事實이다

×

二百年來의酷甚한치위가오리라고 西歐의某天文學者는

馮唐何如人

今年의天候를預言하엿다한다 그는吾黌의알수업는바이다 그러나『엘리』海의東岸『네바』江의沿岸『화잇·나이든』의異樣의景色을가진原野는北國으로부터불어오는 그의萬里의大風은『오섹、예니세이、오논바이칼』의長江大湖로하야금바야흐로濁浪이滔天하는非常한場面을들어내며 畢竟은그滾滾한長流 警備의노래가한창흠흠한鴨江의對岸外지오고녀!아아이長風!그悽愴한氣勢로써滔滔히가고 滔滔히오되그를듯고보는者 또한어씨할수업고녀!

×

李景林 郭松齡의反奉擧兵으로因하야 中國은문득다시大動亂의形勢이라한다 段執政이太息流涕하고 奉張은失色落膽이라고한다 그러나그의最大의禍因은 馮玉祥唐紹儀等 國民黨의文武兩首領等의露國과結聯如何에잇슬것이다馮과唐은何人고?馮은그由來가分明하거니와 일즉左傾을傳한바업든唐紹儀는 또한未可知에屬한者이로다

天津總攻嚴令

馮玉祥對岳、鄧

……形勢刻刻險惡

(北京二十五日發) 馮玉祥은二十四日夜岳維峻、鄧寶珊의兩軍에對하야三日以內에 天津을總攻擊하라고嚴令을下하야 天津의形勢는刻刻險惡하게되엿더라

現政府擁護決議

國民軍의軍事會議結果

(北京二十五日發) 馮玉祥氏는張作霖氏의凋落을豫想하고現內閣政府에對한態度를決定하기爲하야包頭鎭에서軍事會議를開한結果李烈鈞氏의反對가잇섯스나結局段執政을擁護하기로決하엿더라

段政府馮派提携

……近近內閣改造

張宗昌은이미免職決定

(北京二十五日發) 北京政府는時局의急變과共히國民軍과의提携가明白함으로張作霖氏로부터離脫의態度를表한지라內閣改造는近近行하게되야張宗昌氏도免職하기로決定하얏더라

段執政畢竟下野?

和平破綻의責任으로

(北京二十五日發) 李景林軍의反抗으로하야生한奉軍의兵亂은奉軍이再擧猛進하지만안으면直接段執政의根底에動搖가無하겟스나交通、農商、陸軍各總長의更迭은免치못하겟고段執政도和平破綻의責任을負하고野에下하리라고豫期되는中인데段의下野에對하야는開會中인關稅會議를續継식힐必要上어데外지던지留任을勸說하게될것가트나事態는決코樂觀치못할지나形勢가或은意外의變化를生하리라고觀測되더라

◇西班牙獨裁官 푸리모·쏘리벨라氏

家族은이미天津에

(北京二十五日發) 段執政은本日妻子家族一同을天津日本租界內의自宅에避難식히더라

張氏에下野勸告

◇…郭松齡通電

(北京二十五日發) 郭松齡의軍隊十六列車는昨二十四日山海關으로向하야出動하고郭은灤州로부터通電을發하야張作霖氏의下野를勸告하는同時에張學良으로하여금東三省의治安維持의責任을負케하고楊宇霆姜登選의退職을命하엿다

國軍二萬

保定에到着

(天津二十五日發) 鄧寶珊을總指揮官으로한國民軍二萬은保定에達하야其一部는入京하엿더라

李景林軍

灤州에進出

郭軍을援助次

(天津二十五日發) 國民軍은李景林、郭松齡兩氏에게今後는念慮말고張作霖에當하라고打電하엿다一方李景林氏의軍隊의一部는郭松齡軍을援助하기爲하야灤州에向하야進發하엿더라

奉軍戰備整頓

塹壕를急築

(北京廿五日發) 奉天軍은目下北倉楊村方面에增兵하고頻頻

日本派의凋落과

陸軍部內의觀測

(北京二十五日發) 陸軍部內에서는楊宇霆、姜登選氏의失脚으로써日本派(士官學校出身)의敗北、大學派(北京陸軍學派)의勝利로解釋하고張作霖의沒落은滿洲에對한日本勢力의凋落의兆라고評하더라

郭李行動과

日政府態度

(東京電) 郭松齡李景林兩軍의行動은滿蒙에對한日本의特種利益에重大關係가有함으로써日本政府는特히外務陸軍兩省에서注意하는中이다戰亂이關外에及하면……

楊宇霆은

日本에亡命?

(奉天二十五日發) 楊宇霆은昨夜十時五十分當地發大連으로逃亡하엿는데同地로부터日本으로避難할터이라하며人心이頗然緊張하야奉天派의內亂이起하리라는風說이잇더라

今後는馮派天下

奉派의凋落機切迫

(北京二十五日發) 郭松齡、李景林兩氏는어니程度外지馮玉祥氏와諒解잇슴은明瞭하야漸次馮派의天下가되는中이나馮氏는當分間更히第二回의政變을決行할豫定인데其時機는아마關稅會議終了後가되겟고이리하야奉天派는茲에全혀凋落할것으로一般히觀測하더라

總辭職?大改造?

中心은勿論國民軍에

(北京二十五日發) 奉天軍內部가大變動한結果奉天派에依하야支持되든段內閣은其基礎에大動搖를起할터인바恐컨대現內閣은總辭職을하던지或은大改造를行하고國民軍側을中心으로한組織을實現하리라然이나關稅會議에關하야는國民軍은極力其進行을支持한關係上委員의人物에多少의變更은잇슬지나大體何等의影響이업고도리혀順調로特히日本側으로서는一層有利하게進行하리라고觀測하더라

江蘇、安徽

兩督辦更迭

(北京二十五日發) 本日執政令으로써江蘇督辦楊宇霆、安徽督辦姜登選을免職하고孫傳芳을江蘇督辦에唐徐澤을安徽督辦에任命한旨를發表하엿더라

五省聯合

……政府設立

孫氏地盤維持策

(上海二十五日發) 孫傳芳은地盤을維持하기爲하야徐州占領으로써一段落으로하고山東方面은河南軍에게委하고南京에歸하야五省聯合政府를設立하기로決하엿더라

中國債務整理

委員會設置決定

(北京二十五日發) 二十四日和蘭公使館에서行한八個國公使會議에서日本의主張한中國債務

中國戰火의再燃(一)

十一月二十六日 民世

世界形勢의趨移를次第로敍述키로公約한바잇거늘 健康의關係로자못累日遷延하엿섯다 그리고敍述의主材가 아즉中國戰亂의範圍를벗어나지못하엿스니 차라리그題目을變改할의必要를認한다 戰火의再燃은保定 大名의京漢沿線과 밋山東의西境 河南의各地에서 岳軍과밋李景林 張宗昌의諸軍이如何히接觸할에잇슬것을指摘하엿섯다 그는大軍을擁하고

北京의孔道를

阨한李景林이 오즉奉張의一命에依하야 唯唯히偃旗卸甲하고閑地에退嬰하야그의發落을기다리리라고는推斷할수업는外닭이엇섯다 그러나이제李景林이 이미馮氏의國民軍과妥協함을傳하고郭松齡이突然히七萬의雄兵을擁하야灤州로부터奉天을進擊할것을報하니이로因하야震源地上의不完全한假建築인馮張의妥協은當時에轟然한爆搖과함씌 一

大震動을닐으키게된것이다 郭松齡의對張氏反旗는 급작이戰火再燃의主力을지엇스니 자못意外인者어니와 또한全혀意外인者도아니다 다만昨日의腹心今日의叛將으로豹變無常한그들의行動만은 果然揣摩不測이라고投匙三嘆하지아니할수업다 聯合軍의徐州占領과함씌 戰亂의重心이直派의 勢國인長江의沿邊으로부터

京津을中心으

로한北中國諸地에移動된것은世人의看破한바어니와 李景林 郭松齡等의豹變을誘發케한馮玉祥의背後에는 帝國主義의破壞를目標로突進하려는 勞農露國이잇는것과밋萬一의境遇에는 그의『特殊한利權』을擁護하기爲하야 滿洲出兵의決心을 表明한日本의態度를생각할진대 中國의戰火는漸次그國際的禍因을擴大하는途程을急進하고잇다할것이다兩次의戰役後에奉派財力이

奉軍主力을擁

매우缺乏되엿슬뿐아니라人心의離叛이자못甚한바이엇고하물며張學良 楊宇霆等의橫暴를憤慨하야 早晩에叛旗를드는者잇슬것을傳하엿스니 彼等裡面의陰謀는 그由來가깁흔바잇슬것이다郭松齡은最近外지山海關으로부터京津一帶에進出하야 一時는廊房 落垡鎭 楊村等地에占據하야 張作霖의實子인張學良과그居起를함께하며 하엿든者이라 이제突然히豹變하야 主力으로써奉天을進擊할것을報하는一面으로 張學良의推戴와張作霖의引退外지도主張한다하니 그는자못또奇怪한感이업지안타 그는곳橫暴로因한張學良排斥의說과함께 매우裡面에複雜한事情이잇는것을짐작할것이다 그러나郭松齡의豹變은곳昨年十月馮玉祥의豹變으로因한吳佩孚의地位이나마친가지로매우奉張의地位를危險케하는바잇다할것이다 다만奉張이스스로根本을坐鎭하야오히려各派의將士를擁하엿스니 그의將來는다만一郭의 摧敗됨이잇스리라고

土崩瓦解의實

미들수는업거니와 形勢가不利한때 頹然히崩壞하야 所謂土崩瓦解의實을짓는中國에잇서서는 그局面의變動이또한單純치아니한者잇슬것이다 李景林이馮氏와提携하는模子를지엇다하거니와 아즉도積極的態度를取하지아니하고 오즉中央政府의治下에서그의命令에順服할것을 聲明하며 奉派의要人을 免職할을報하니이는即李氏의本意가奉張을도로혀 馮氏와和하야 그勢力을扶植하야 우선直隸一帶의 氏는岳軍諸將을命하야 스스로一方의雄이되기를期할것이다 三日以內에天津을占領할것을命令하엿다하거니와 天津은東北中國의咽喉이오 同時에直隸의重地이라 直隸에蟠據하야中央의政權을支配코저하는者 반듯이그의占領을企圖하는바이니 그러면馮岳과 李郭諸人들의이方面에對한態度는畢竟어떠한程度外지協調가될는지 그는도리혀매우

緊切한政機의

所在이다 即李景林이 어느程度外지의忠實한態度로써 馮岳諸人과提携할는지는 詳細한後報를기다리지안코서는 判斷키어려운者이다 馮派의第二軍長인鄧寶珊이 二萬軍으로서 保定에進占하엿다하니 이는前者妥協條件에因함이오 李景林의內心이엇더할는지는疑問인者이나오楊宇霆이또한辭職退隱함을報하니이는奉派動搖의重大한者이다 이러하면山東各地의將卒들이모다 反奉의態度를表明할것은必然한일이니 孫傳芳諸人의地位가一層安全하여짐은 또한必然한일이다 但山東一省이畢竟누구에게屬하게될는지? 河南東路軍의首領인陳文釗 王文爵等吳佩孚系의諸人이 만일兗州濟南一帶에進出하야 同省의出

吳佩孚와呼應

하고 國民軍과利害를달리하는者暗暗히 이를援助함이잇다할진대 그도또한興味잇는一局勢를現出할것이니이는全혀架空的推想이라고만할수업다 그리고段政府의地位가 莫大한難關에逢着한것은事實이다

稅率問題

列國妥協成立?

(北京二十四日發) 稅率問題를中心으로目下該會議에서中國及日本과英國間에盛히諒解의進行되는中인데結局審查委員會를設置하기로決하야

特殊品

互惠條約成立

(北京二十五日發) 特殊品에關한互惠條約締結의協定이日中間에成立되야近近互惠的討論에入하기로決하엿더라

郭軍四路로前進

主力은長驅奉天을衝擊

(北京二十五日發) 郭松齡軍은四軍에分하야前進하는데第一軍은主力으로長驅하야奉天을衝하고二軍은山海關附近의張作相汲金純에對하고三軍은熱河의闞朝璽에對하야다先히妥協을試하고若되지아니하면決戰을交할터이오第四軍은豫備隊로하엿더라

違令者는

一切監禁

(二十六日午前十一時半發某所着電) 灤州로부터歸한張師長副官及兵站部副官의言에依하면自己等은郭의異圖잇슴을知하자西方에巡하야 郭의部隊駐屯地를避하야歸來한것이다彼等은胸部에赤葉의徽章을附하얏다 그런

姜登選等監禁

(天津二十五日發) 郭松齡은始初『구데다』計劃을세우고各方面과連絡하야此際張作霖이引退치아니하면非常手段을하리라고聲明하엿다郭松齡의司令部內(灤州)에는姜登選外三名의師團長과此數名의屈强한軍人이監禁되여잇더라

威脅通電

李景林對張作霖

(奉天電) 直隸督辦李景林氏는郭松齡氏가奉天派에背反하엿기째문에苦痛인場面에立케되여

張作霖監禁說

(北京二十五日發) 段政府의情報에依하면監禁의報를接하고 天津에電話를걸거러其眞否를李景林에게무른바李景林은아마事實이리라고答하엿다 段執政은그러면貴官의態度如何를 質問함에李景林은余는다못中立을守할뿐이라고答하엿다더라

대同地方各部隊의團隊長以下로서郭의意에反한者는다監視의下에잇고營長以下는斷然事情을不知하고運動하는中인것은事實이라云云

奉軍의大變化未免

在奉奉軍은거의郭의部下

(北京廿五日發) 郭松齡은二十三日灤州에서李景林馮玉祥의代表等과軍事會議를開하고張作霖의下野、楊宇霆一派의君側의奸을除할을名目으로하야곳司令部를灤州에進하고主力軍을出動식힌것인데廿四日朝山海關에서張作相軍과衝突하야多少의損害를受하엿스나이것을突破하고遂히關外에出하야先鋒은綏中에達하엿다奉天에잇는奉軍은거의郭의部下이매奉天에重大한變化를起하리라고豫期하더라

카라한氏來奉

(奉天二十五日發) 『카라한』

白國副領事

所持品被强奪

(北京二十五日發) 白耳義副領事『라푸오라인』氏一行은汽車不通으로自動車로써天津으로부터北京에來하는途中兵士에게時計所持金等을强奪當하엿다더라

各地總豫算案

局議大略決定

(東京電) 各地十五年度豫算

動亂과關稅會議

……中止?繼續?

(北京二十五日發) 時局의變化가關稅會議에及한影響에對하야外人方面의觀測은該會合하면外交團도或은段執政의下野를理由로하야斷然會議를中止식힐것도考慮치아니할는아니나中國委員中黃郛王正廷氏等은專혀國民軍과의關係가조코顏惠慶、王寵惠、沈瑞麟、蔡廷幹等은比較的軍閥派에超然함으로直接壓迫이업는限에는會議의進行에는支障이업스리라고觀測하더라

鐵筆寫演 投稿歡迎

日本議會의解散與否는today스워지만는床次의手中에(讀日文紙)

產米資金은

爲主히低資로

(東京電) 朝鮮產米殖計劃은總督府補助는從이오主가되는것은低利資金을預金部又는一般市場으로부터得하야水利組合及工事組合에供給하야開拓하라고하는것인데大藏省도이低資融通의緊要함을認하고松本銀行局長도이것을力說함으로減額하야低資融通으로確定하엿더라

總監後任銓衡

首相總督再協議

(東京電) 朝鮮政務總監後任에對하야는매우推薦運動等을行하는者인바種種의下馬評이엿는데總監의椅子는朝鮮統治上頗히重要한地位임으로此의適任者를得함은容易치아니한貌樣이다特히曩에下岡氏를總監으로하든時는加藤首相으로이것을强然히한感이잇섯스나今에는그러케簡單히行치못하고既히二十三日의首相과齋藤總督과의會見에서도後任問題에對한兩者意見의交換을行한事는事實이며遂히雙方適會

復興計劃에伴한高利公債 二千五百萬圓

改鑄益金으로

特別會計設置

(東京電) 造幣局의造幣資金은銀貨改鑄益金의增加에依하야頗히多額에達하야十三年十二月外지에一億八千萬圓에達하엿는故로其中五千萬圓을資金으로殘置하고一億三千萬圓은農林振興教育改善基金으로特別會計를新設하엿스나銅、銀貨改鑄益金은其後 千五百萬圓을得함에 至하엿기째문에 大藏省은 右益金을繰入한特別會計를設定하야公債를引受코자하는計劃이잇슴으로따라서十五年度公債發行方法은左와如히改正될터이라더라

郵便局賣出 六千萬圓
預金部引受 五千萬圓
銀改鑄益金引受 千五百萬圓

日露利權交涉의

最終妥協案決定

(東京電) 日露利權交涉에對한日本政府의最終的妥協案은外務省과當業者와協議한結果決定되야二十五日夜深更에日本代表에向하야訓令을發하엿더라

와交涉을遂하게되리라더라 右會에意見一致를見하면候補者의會見을見하게되엿는데二十六日午後再次會見하기로하엿다

下岡氏追悼會

故下岡政務總監의追悼會는二十五日午後三時부터長谷川町公會堂에서在京官民의合同으로佛式에依하야擧行하엿는데參會者인各宗僧侶가着席한後一同敬禮及始經及燒香이잇슨後下岡家에對한吊電披露하고午後四時에閉會하엿는데參會者는千餘名의多數이엿더라

人事消息

▲李泉鎔博士 歐洲留學하든바今朝歸國本社來訪

八面鋒

○段執政은、時局의紛糾함을보고、涕泣不已하엿다고、東洋사람은、울기잘한다고、哭譜에記錄되엿더니、참그런모양

○郭이가고、李가다러나니、奉張은、楚歌中에잇게되엿다蓋世拔山의氣力、所用잇나?烏江에、배가잇는가업는가?

○陶山書院兩班들、엇지그리도世上을、擾亂케하나?草堂에드러가、잠을좀더자야만할가?

가뎡부인

가평론 우리들은감사할날이업습니다 (一)

平洞散人

……메리칸」에와서새로토디를이룩하고 가장행복된 자유로운생활을함에에해마다 농사를지어추수를 하여노코 십일월의넷재목요일로써특히감사한날을정한것이라함니다 그는매우필요한일입니다

◇십월상ㅅ달이라는말이조선에잇습니다음력십월이양력으로 십일월이니까 조선서도 추수가다되는 십월로써 매우 감사한뜻을표한것입니다 떡을쎄고무당을불러서신을위하고 이옷쎄리 난우어먹는것은 그풍속의 진보되지 못한것이라하기보담은 차라리 그의라락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감사한날을가지고십흔바이오 더욱히「십월상ㅅ달」이라는던하여오는풍속과함의 이음력십월에 상당한 십일월로 특히 감사한날을가지고십습니다 구력십월 사흔날은단군(檀君)에서조선나라를 처음으로 배포한날임으로 이러한 력사뎍인연과 합하야 매우감사한날이 되겟지마는 그도 이제는거의다 업서저감니다 그러나 우리는감사하는날이가지고십습니다

위치와 부임 긔후의변화에 저항력이적다 (一) 따라서온갓병이발생

운동

에게는적당한 운동이필요하건만신장염에걸리면절대안정을 직히지아니할수업슴즉 보통입부들의 섭양하는것은 모조리 하지못하게되는 터이올시다 그런고로 아기를배인 어머니나 배속에든 아기가다가티 조치못한영향을 밧게됨니다 그외에신장염에 걸리면 자간(子癎)이라는무서운 병을발생하기 쉬웁니다

자간

이라는병은발금기를나흐라고할째아에갑자기몸을 실룩실룩하고 정신을 일흐며 얼골이보라빗이되고 피가석긴거품을 입으로내여쏩는것이올시다 그피는 자긔도 쌔닷지 못하는사이에 혀를쌔믐어서 흘르게하는것이니 마티간질쟁이와 비슷한증세를 나타내입니다 다섯번여섯번식 그러케하는째도잇스니

산모

와아기의목숨을둘다건지지못하는경우가 만홉니다 실로무섭고두려운병이라하겟슴니다 또한 입부가 감긔에걸림으로인하야 폐엽(肺炎)과긔관지가답아(氣管支加答兒)늑막엽(肋膜炎)등을니……

기침

……트키기 쉬운것은 여러분의서이미다아는일이겟지마는이와가티 호흡기병(呼吸器病)에걸리면자연히기침이나오고

기침을몹시하다가배속에든아기가위치를변하든지 하게됨니다 감긔는조선사람들이 매우경하게 아는병이지마는 입부에게는 이우에업는 무서운결과를생기게하는병인즉여러가지로주의하야 후환이 업도록힘쓰기를바람니다(계속)

상의

금주할 약이 업습닛가

『문』 커는 이십오세밧게안된 청년입니다그런데 사오년전부터 술을먹기 시작하야 지금은 말할수업는 폐음자가되엇습니다 술을 먹어도별로실수하는 일은업스나 몸에는대단히 해로웁고 경제상에도 만흔손실이잇습니다 그러나다만 마음으로만 금주를하기가 어려우니 혹의학상으로금주할약이업습닛가 (燕岐, 嗜飮生)

『답』 물론 술이란것은 실수가업슬지라도 아모조록 아니자시는것이 조슴니다 금주는결국마음으로 하여야됨니다 별서무슨약의 힘을비러 가지고하라는 그마음부터 대단히약해뵙니다 인케스물다섯된 청년이 그만한결심이 업스면되겟습닛가 약의힘을 빌생각부터 구만두는것이 조흘듯함니다 (일긔자)

金剛禮讚 (五四)

白雲香徒

松林窟

彌勒峰에서 다시楡岾寺로回轉라와가지고 松林寺方面으로轉進하는것이路順인데 楡岾寺에서는가는길이둘이잇습니다한아는狗岾을넘어서 百川橋로하야들어가는길이니 길이便한대신 里程이四十里가되고 한아는뒤人등을타고넘는捷路ㅣ니 距離는前者의折半인二十里나 길이몹시險峻하야 山行에닉은이라도 매우어렵게아는險路입니다 그러나 中間에는鶴巢臺도잇고 또구경길에는고생도한재미니까 다리만허락하면 바로가는편이좃습니다。

◇楡岾寺에서北으로 浮屠人등을타고 가느단가파른길을더듬더듬올라가면 七八里나됨즉하야서 한마두터에들올다서니 昇降이어렵다하야 成佛峙라고부르는곳입니다。한참나려가서는 다시한고개를 올라서는데 峻急이度를踰하야 오르고나림이거의근두박질의 勢를보입니다。金剛山에서 시방外지險難한길도퍽지냇지오만도 줄곳근두박질로만나려가기는 여긔서처음입니다。兩邊에는原始的濶葉林이 멋업시빽빽하야 平夷하며도자미잇는길이아닌데 게다가 자개돌덤힌길에 蘇沓가맛그려워서 五步一滑十步一轉으로 위태위태나려가매 나려가는길이 다른데올라가는수고의 몃몃곱이됨니다。

◇마루터에서 三四里나나려가다가 길이하번 구을려하고 소나무둘더난盤石한아가 갓바진다리를쉬우라는것처럼 역기는목쟁이에노엿는데 안는줄모르게거긔가서덜퍽안즈면 왼편덜미로천야만야한峭壁이 하늘을찔으려하고 둥우리가튼새깃이그中間의턱진및헤 ……려다보입니다。해마다卵育期가되면玄鶴이와서 깃드리고새기를길러간다하는데 그리로부터 허여붙이 흠터나려말니부른것은 분명그排泄物들입니다。보앗단사람의이야기를듯건대 대개海上의무슨큰새가 人天諸災의未到地를擇하야 여긔와서알을쌔는모양입니다。迷信만흔居僧들은 이것을海上仙禽이라하야 종업는像想談을바로目睹한것처럼옴기는데 그幻詭味가얼만콤脚勞를니저버리게함니다。話柄이지 구경으로그리대단한것은아닙니다。

◇나려갈스록더해지는근두박질을 다시四五里나하면서 골작이한아를건너고 모퉁이한아를쒸고돌면 문득澎湃한소리가귀를솜게하면서 膽開洞나리는물이 바로발압헤내닷습니다。큼은바위의징검다리를 경정경정쒸어건너가면 집채가튼바위가집념히踏하고 楊蓬萊의書라는『松林泉石』의刻字가 여권히筆勢를발뫼이고잇습니다。그뒤로올려다보면 隱仙臺來脈으로 아득히놉고 어마어마하게큰峰이 왼통一拳石으로생기고 멋…… 千萬年風霜에나갈려선지 그面貌이번드르하야 造化의솜씨까 이老僧의光禿禿한 天庭처럼민숭숭한맛뵈엇는데 이것을老丈峰이라고부릅니다。이老丈峰을등지고 시내건너로五眾、風穴、鶴巢、隱仙、七寶等五臺들압흐로거느리고안즌것이 松林窟이라는小蘭若입니다。마조보이는臨溪小丘에는가즌나무가 가닥가닥葱鬱하야가을한철의 層결이진紅葉이 자못盛觀으로널것는것입니다。

千兩자리俳優 (全六卷)

十二月二十六日부터단사에상영

『루크』라하는 시골에서 마차ㅡ선흔희한 사람이며기를 원하엿물모던청년이 항상큰도회에가ㅡ스나본래가대단히멍청한까닭에 뜻대로되지못하다가그시골에한연극단이드러왓슬째에 그연극단녀배우와서로사모하는사이가되엇섯다

그연극단일행이 간뒤에 『루크』는훌륭한사람이되여보겟다결심하고도회로가서자동차운전수가되엇다가우연한실수로그직업을일코날마다사모하는그녀배우를차저갓다그리다가그극단에엄시고용이되야 무대에나아갓다가그극의녀주인공의얼굴을 맛날째에그째두사람은그러한 연극에서우연이서로만나게된것을 버하야 그들은케정신업시 서로포옹(抱擁)을 하게되엿다그포옹이 극장주인의눈에드러 『루크』는 정말 배우가되엇다는 우승거리 영화이다

流浪하는벗

崔蝶夢

벗이
못피든아참北國으로 떠나간
달뜨는저녁에 그리워집니다
쌔는어이 荒凉한가을이되여
落葉의屍體가바람에 둥구는
소래
외로운나를 멧번이나울게하
는지—

첫겨울그곳은 劍戟과砲火의
世上인데
漂浪하는白衣人의集團이 뎜
러됨니다
피로물드린 싸홈의거리와벌
판으로
목숨과함의 애쓰며 헤매는모
양이
자나쌔나 멧번이나보여왓는
지—

쌔는北國에 눈바래칠겨을인
데
울고간벗이 기다려집니다
간봄살기조흔배달땅을떠날쌔
離別하기서러워 늣겨우는양
가삼에傷處를 멧번이나압흐
게하는지—

눈덥힌大陸의 벌판에
산송장이된벗이애처롭습니다
가든피와피가 엉크러커보인
情熱들이
祖上의遺業을이으랴 努力하
는양이
靑春의熱血을 멧번이나쓸게
하는지—

◇우리독자의 우미관은란외에◇

합이빈의추수감사제

합이빈도리(哈爾賓道裡)긔독교례배당에서는 년례에 의지하야 가을마다한번식거행하는추수감사절례배(秋收感謝節禮拜)를 지난십오일 오후에그례배당안에서 성대히 거행하엿는데 남녀학생과유치원생도들의 자미잇는 가극과 연설이만히잇섯스며 특별히 만세살과네살된어린아기들의 유희창가와 연설에는 만장청중의 눈을놀내지안을수업섯다 일년동안 하나님의은혜로 잘먹고 잘닙고살엇다는그감사한뜻을 표하기위하야 일반교인들은 다수한금전과 물품을당일교회에밧치엇다더라

(사진은 연설과 창가로 만장의 박수갈채를바든 여러어린아기중의하나)(합이빈)

童話 재투성이 (六)

사흘재되는날 재투성이는 그의아버지와 계모와 어붓형님들아간뒤에 꼿자긔어머니무덤으로가서나무를향하야

나무야흔들려라
황금아쏘다저라
보석아떠러저라

하고 소리를놉혀 부르는다 이번에도 그나무에 재투성이에게 조흔옷한벌을 떠러주엇습니다 그의복은 아직까……

……한녀자인지모다거절하엿습니다 이윽고 처녁쌔가 되엿습니다 재투성이가 연희석으로부터 도라가라할즉왕자는

『나와동행합시다』

하고 둘이나란이서서 방문밧글나오자마자 재투성이는 얼핏몸을감추어 버렷슴니다 왕자는『닭쫓든개 집웅치여다본다』는격으로 사면을 휘돌나보앗스되 가치가든어엽분처녀의자최를알수가업스니 그만하도어이가업서 멍멍히발능을굽어보고잇슬따름이엿습니다 왕자는 이리생각저리생각별별궁리를다하다십히하야겨우한가지 계책을 어덧습니다 『이어엽분처녀가아모째어데로가든지반드시 대궐정문을 나서지안코는가지못할러이니저문(正門)밧게잇는층층너우에 ……이를 발러두어보리라』하고곳하인을명하야 그리케하엿습니다 재투성이가 왕자의눈을 피하야 살금살금 요리조리 싸커서대궐문밧글나서러 할째에 구두가층층대우에 쩔걱 달러붓고떠러지지를 안엇습니다 엇지로째여보다못하야 그만그대로 신을버서내버리고 버선발로 다러낫습니다조금후에왕자가층층대우에부러잇는조고마한구두를발견하엿습니다 그리고이것은 자긔와오늘종일 손목을맛잡고 춤을추든그어엽분처녀의 구두임을 분명히알엇습니다 이에 왕자는 그구두를 주어가지고 재투청이의 아버지에게로가서

『이구두가맛는 녀자와내가혼인을하랴합니다 혹당신네 딸중에는 업슬가요』

하고물엇니습다

멍텅구리 가뎡생활 (36) 걸상미테

(一) 차표를일흔 멍텅이가

벌서 진주인가? 어이구 내차표가 어듸갓나?

어이구머니저얼울어이하노 고만저걸상밋헤숨기이소

(二) 걸상미테 업드렷다가

응?이러케말이야? 그럼내려보아서아모도 엄거든일러쥐

네-걱정말고가만히게세요 내먼저내릴터이니

(三) 역부에게 창피를당하면서

자두장이요 잘바드소

엉?이게어이된일임게요

(四) 머리만내밀고 엉?

또한분은저기잇답니다 아하하

아이가 점잔은량반이와 이리기하는게요?

엉?

小說 靑衣夜叉 (청의야차) 四七

金浪雲 譯 / 盧心汕 畫

밤에쌀는것은 검으스름하며 부피가두터워서 발소리를 내지아니하고 걸을수가잇섯다 세개의 큰문은 가구와가티 …… 내가 손으로더듬어서 알은것과가티 ……

……는 다른가구와가티 비단보로 덥혀잇섯다、한데나는 시침을쏙쩌고 그것을만저보앗다 손에서치는맛도 쏙갓고 크기도 쏙가탓다 위치도또한 변하지안엇섯다

나는 그째이방에서 그무참한비극이 옷날째까지 이침대에 누어잇섯든것이다 나의머리는 혼란하여젓다 나는 눈을감앗다 소녀가 시계추에매여달려서 흔들거리는 그큰시계는 그무서운밤 쏙그모양으로 둔하고느리게 그러나웅악뎍으로 쏙 떡 쏙 떡 하고잇섯다 얼굴을돌리고 눈을감은 그순간、그날밤의 참극이 력력하게 눈압헤떠나오앗다 재그락재그락하고 무엇이쌔지든소리、계집의부르짓든소리、그다음에 그안에서일어난 공포에쌔어서 부르짓든소리、녀자의 그욱한 치마쓸든소리、살인자가 힘세게 나려치던소리、그러한것이 일일히 들리는듯하엿다 그러고 그째에떠러지던 죽은사람의 미지근한피는 지금도나의손에 떠러지는듯이 늣기엇다

「안손」색시가 돌연히 그하얀손을 피아노우에 울속인까닭으로 나는비로소 정신을차렷다 마츰내 그이상한비극이 연출된그집을 발견하엿다 이것을단서로 엇더면 그수수께기를 풀을수가잇슬는지도 알수업섯다!

나는 침대위를 가만히바라보앗다 그가온데에는 비귀지게 뎁개가언치어잇는데 그것은또한 울속이지못하게 쇠매어첫섯다 다행히 내가안진곳은 그늘진곳이며 그째마츰 「안손」색시가피아노를 라기시작한고로 나는―흔들흔들하고읽어서서 침대우로 밧구어안젓다 그러고「안손」색시가한곡조를 타는동안에 아모도몰으도록 비단보에 쇠매어노흔 그뎁개의 실밥을 뜨덧다 그러고나는 아조자연스럽게 그뎁개를 엽흐로밀어노앗다

음악은그쳣다、한데 수색하기에 열중하엿스면서도 나는 「안손」색시를향하야 하나도틀림업시 피아노를친것을 칭찬하여주엇다「힌크맨」은 그의엽헤 서잇섯다 그두사람은 그다음에 탈곡조를 찾기시작하엿다 그동안에「월쓰」양은 또도야지와 코기리를 재그락재그락 울리면서 머리를돌리어 나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엿다 이까닭으로 무론나는 방해를바닷다 그러나 한십분쯤지난후에 나는일어나누테하고 주름삽힌 비단보를펴면서 그것을치들고 자세히보앗다

갑작히 모든사실은 명백하여젓다 그네귀진 록색뎁개밋헤는 그비단보우에 커다란 암갈색의 더러운자욱이 숨기어잇섯다 이야말로 심장을단번에 찔리어넘어진 그파리한 훌륭하게차린 희생자의 피흔적이아니고 무엇이랴!

나는 부지중 진저리를첫다 그러나 다음순간에는 뎁개를 케자리에 당긔어노코 시침을 뚝쩌고는 무슨다른 증거품을 차저보랴고 생각하며 방안저편으로갓다 검은대리석 바침대우에는「나포리」의 귀여운춤추는소녀의 모형이 웃둑서잇섯다 지나가면서 나는자세하게 그것을보앗다 그것은 내가 더듬어만저보든것과 똑가튼것이엇다 그러고 그무서운밤과 똑가튼자리에 잇섯다

다시 도라볼째에 침대아래로 내던저잇는 큰날근가죽이 눈에띄엇다 그것은의심할것도업시 방바닥에잇는 피흔적을 감추는것이엇다

◇天氣豫報 晴
◇溫度 廿六日 正午 [illegible]
◇比較 廿五日 最高 [illegible] 最低 [illegible]
◇日出前七時二五分 [illegible]
◇日入後五時一七分 [illegible]